

예레미야 애가 7장

예레미야 애가 5:1-22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1. 무너진 가정(5:1-4절)

(1)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다! (1-2)

(애가 5: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1) 기억하시고: 형편을 헤아림,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고 갚아 주심.

(2) 한 가정의 해체, 파탄난 가정 경제(3-4)

(5:4) 우리가 은을 주고 (우리)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우리)나무들을 가져오며

1) 우리 물: 기혼샘-실로암. 우리 나무: 값을 매기지 않음. 공공재

2)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종속된 경제

2. 부서진 사회와 그 이유 (5:5-10절)

(1) 치욕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5-6)

(애가 5:6)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1) 계속 도망가야 하는 상황, 목이 눌러져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상황

2) 악수는 평화와 대등의 상징. 그러나 여기는 굴욕적으로 손을 내민 모습

(2) 무너짐과 부서짐의 이유, 죄(7)

(애가 5:7)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 유다의 멸망은 단지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함이다.

(렘16:12)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더 범죄했음을 잘 알고 있다. 죄로 인해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조상들이 없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음을 아뢰고 있다. 더 큰 죄에 더 큰 진노를 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호소.

(3) 한 끼의 양식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9-10)

3. 파괴된 삶(5:11-14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절정에 달한 정복자들의 포악함.

(1) 여인들이 고통당한다(11절).

(2) 지도자들에게 임한 끔찍함과 치욕(12절)

(3) 미래의 동력 말살(13절)

4. 죄에 대한 고백 (5:15-18절)

(1) 일상의 무너짐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삶의 은혜(15절)

(애가 5:15)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1)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고, 슬픔의 상황도 춤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

2) 다시 한 번, 지금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자.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 30: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3)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선지자와 공동체의 고백.

(애가 5:16)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1) 우리 삶에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함이 참된 은혜이다.

2)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는 탄식이 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했음에 대한 탄식이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와 공동체에 대한 탄식이다.

5. 회복을 구하는 기도(5:19-22절)

(1) 이제 선지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애가 5:19-20)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1) 19절: 영원히(올람), 주의 보좌(통치, 왕권)

2) 20절: 영원히(네차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호소.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잊으시고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죠?.

(2)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21-22)

(애가 5: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1)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2)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 옛적: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언약공동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백성.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며

1. 애가는 이스라엘이 포로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 준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시대(70년)의 시작. 어떻게 유다 백성들은 망국의 슬픔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 곧 기도였다.

2. 애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을 교훈한다. 애가는 죄에 대해서 그 댓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22절 정리.

1.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자!

2. 우리 대신 아픔과 고통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자!